

ASC 확대 위한 완도의 노력

ASC 인증 14개 어가 추가 신청 예정

다양성·오염 등 7개 원칙으로 평가 돼



완도군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14개의 전복 어가에서 ASC 국제 인증을 받는데 이어 지난 2일, ASC 인증 확대를 위한 본심사가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2기 전복 ASC 인증은 14개의 어가에서 신청하였으며, 군은 ASC 인증 확대를 위해 심사비 및 퇴적물 조사 등을 지원하였다.

본심사는 지난 2일 서류심사를

거쳐 3일부터 6일까지 현장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심사기관인 글로벌 품질 인증·위험관리 회사인 DNV-GL과 신청 어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서류심사는 종 다양성, 오염, 질병, 사회 부분(노동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7개 원칙으로 평가된다.

현장심사의 경우 심사관이 신청

어가를 직접 찾아 사전에 공개된 양식장에 대한 정보와 일치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 영향 등을 심사 한다.

심사 보고서는 세계양식관리협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에 제출하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완도군은 ASC 인증 획득을 통해 완도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수출 증대, 어가 소득의 안정화 등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ASC, ASC-MSC 인증은 신뢰받는 국제 인증인 만큼 희망 어가들이 갖춰야 할 것들도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군은 3기 전복 ASC 인증을 위해 어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이며, ASC 인식 증진교육 개최를 통해 양식어가 및 유통업체와 협업하고, ASC인증 심사를 위해 업체 및 연구기관과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SC 인증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업체 인증(CoC) 추진을 독려하여 완도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안정적인 시스템 확립해나가고자 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시,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2곳 선정

국비 1억 7천만 원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 마련 공동체 활성화·소규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에 목포시는 2곳이 선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용당1동 '응답하라 1980's' 동목포 레일플랫폼'과 삼학동 '지구를 차갑게, 목포를 아름답게, 삼학동을 푸르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

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용당1동 '응답하라 1980's' 동목포 레일플랫폼은 기차철 활용한 주민 거점공간을 조성해 기차카페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삼학동 '지구를 차갑게, 목포를 아름답게, 삼학동을 푸르

게'는 입암천 꽃길조성 등 주민중심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주민이 직접 제안해 선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뉴딜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규모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은 지난달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무안읍 노인분회 노년층을 대상으로 웰다잉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눈길을 끈다.

웰다잉 프로그램은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준비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 곡선 그리기, 내 마음 바라보기, 존엄사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5회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근대문화재 흑산성당 복원 위해 신안군-천주교 뭉친다



신안군은 흑산성당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및 복원을 위해 지난 4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천주교 성당인 흑산성당은 성 골롬반의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8년 건립된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흑산도 사람들에게 선교 및 교육, 의료,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흑산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흑산도의 근현대사와 함께 한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8월 문화재(등록문화재 제179호)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대교구청은 천주교와 인연이 깊은 흑산도의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철마도서관, 오늘 이영민 교수 초청 강좌 열어

지리학자와 함께하는 인문여행 오후 2시 진도군청

진도군 철마도서관이 10일 지역민의 인문소양 증진과 지식향상을 위해 이영민 교수를 초청, '지리학자와 함께 인문여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지혜의 숲 도민강좌'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강연에는 여행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전문기적인 시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여행에서 사진만 찍고, 다

른 곳으로 이동하는 획일적인 여행이 아닌, 깊은 성찰이 있는 색다른 여행으로 무안가를 열고 가는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위해 여행에서 장소와 사람들을 왜 충분히 알아야 하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영민 교수는 한국도시지리학 회장을 역임하고 장소와 문화 및 사람을 연구하는 지리학자이다.

저서로 '지리학자의 인문여행',

'세계의 도시와 건축', '이주로 본 인천의 변화' 등이 있고 '문화·장소·흔적: 문화 지리로 세상 읽기' 등을 번역했다.

진도군 철마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장도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행사, 도민강좌, 어린이책 작가와의 만남행사 등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 신청으로 군민의 윤택한 문화생활을 위해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영암군, 플리마켓 수익금으로 다문화가정에 공부방 만들다

영암군 덕진면에 거주하는 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공부방이 생기는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덕진면 강정마을에 거주하는 해당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평소 정리도 되지 않는 가정에서 생활해 왔다.

공부방 지원은 때마침 지난 여름 플리마켓을 연 양지원 씨, 김조은 씨, 서옥림 씨 세 사람이 52만 원의 판매수익금을 어려운 가정에 기탁하고 싶다고 알려오면서 이루어졌다. 강정마을을 찾은 관계자들은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공부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침대와 책상을 구입하여 어린이에게 새로운 공부방을 마련해 주었다. 새로운 공부방 책상에 앉은 어린이는 "멋진 공부방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